코로나19가 국제 LNG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원희†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hanwonhe@kogas.or.kr†)

최근 공급 과잉을 겪고 있는 국제 LNG 시장에 코로나19 대유행과 OPEC+의 감산 대응 실패에 따른 국제 유가 붕괴는 대공황 이후 사상 최악의 세계 경기 침체와 천연가스 수요 감소, LNG 투자 삭감 및 이연, 단기적인 LNG 생산 축소 등과 같은 대격변을 초래하고 있다. 이미 유럽 및 아시아 현물 LNG 가격은 현재 사상 최저 수준까지 급락하였고 3분기 미국산 LNG에 대한 인도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각국의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있지만 재유행이 우려되고 종식에는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유가 지속 기조라는 사상 유래 없는 양대 충격이 2분기 이후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국제 LNG 시장의 시계를 1~2년 정도 늦추어 장단기 수급 전망에도 불가피하게 큰 변화와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발표에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시장 전망을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양대 충격이 국제 LNG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살펴본다.